

■ 금주의 프로야구



# KIA 4위 탈환... 승부는 이제부터

“이번주가 최대 고비다” KIA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4위 탈환에 성공했다. KIA는 지난주 두산, 현대와의 6연전에서 3승 3패로 반타자 승부를 거두며 두산을 0.5게임차로 끌어내리고 4위에 복귀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본격적인 승부는 이제부터다. KIA는 이번주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벌

이고 있는 2위 한화와 주중 3연전(8~10일)을 치른다. KIA는 7일 현재 39승3무39패로 5위 두산(39승2무40패)과 6위 SK(41승1무45패)에 각각 두 게임차 이내로 불안한 4위에 올라 있다. 2위 한화(44승2무35패)와는 4.5 게임차. KIA는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한화에 2승 7패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4위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원정 3연전서 최소 2승 1패를 거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KIA는 우선 기선 제압을 위해 8일 ‘토종 에이스’ 김진우를 선발로 내세운다. 한화는 정민철로 맞붙을 뉘을 예정이다. KIA는 한화와 3연전을 치른 뒤 11일부터 최근 5승1패로 상승기류를 탄 SK를 광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른다. 시즌 중반까지 해메던 SK는 후반기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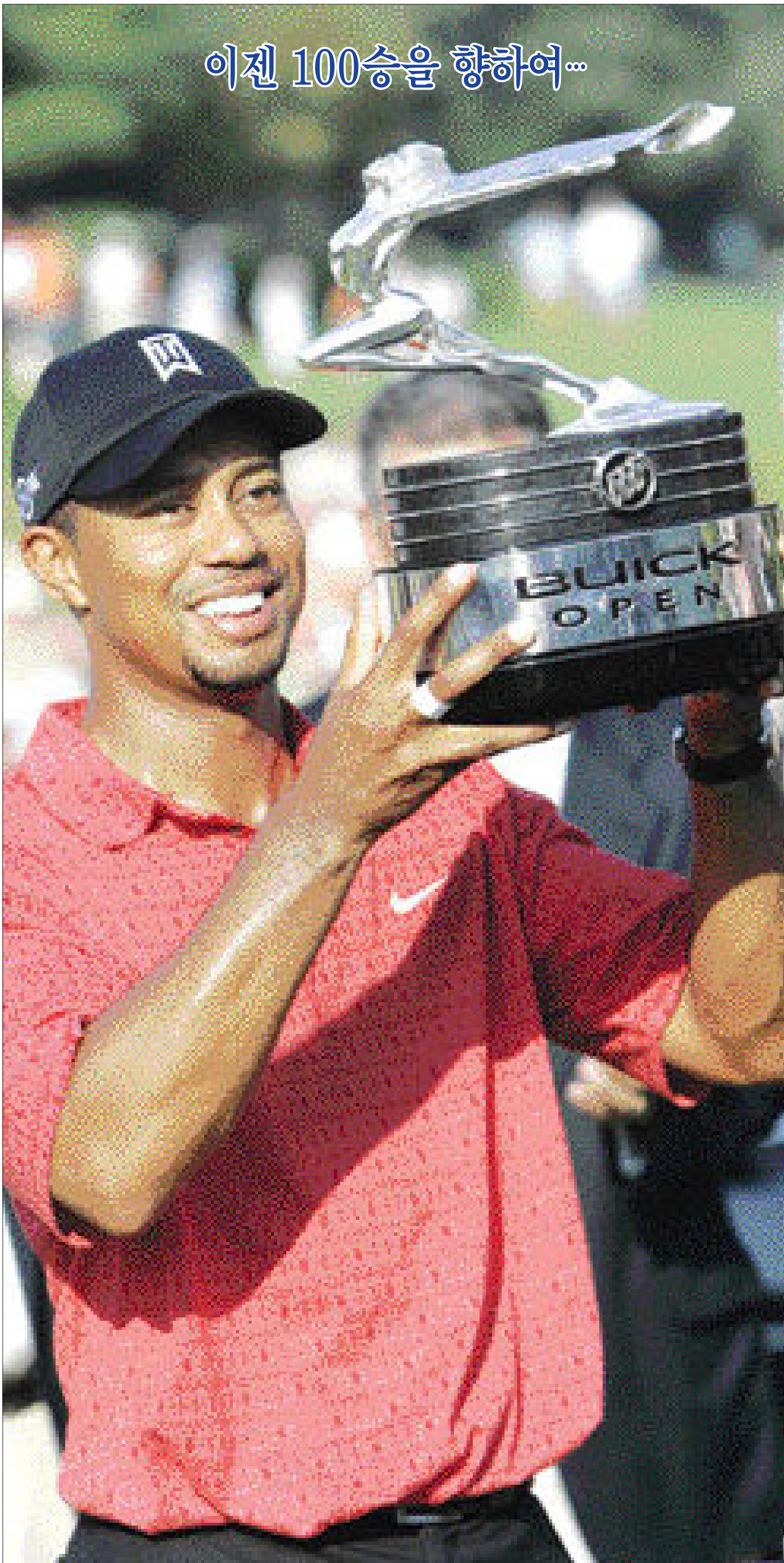
## 5위 두산과 불과 0.5 게임차 금주 한화·SK전 최대 고비

박경완과 이진영 등 간판 타자들은 물론 ‘어린 4번타자’ 최정까지 불꽃타를 터트리며 승수쌓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상태. 이에 못지않게 KIA도 최근 투·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주말 3연전은 양팀 모두 4강행을 향한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환 KIA 감독은 “프로야구가 막바지로 흐름수축 4위권 다툼이 치열해 지고 있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49	30	3	0.620	-	1패
2	한화	44	35	2	0.557	5.0	1승
3	현대	45	37	1	0.549	5.5	1패
4	KIA	39	39	3	0.500	9.5	1승
5	두산	39	40	2	0.494	10.0	1패
6	SK	41	45	1	0.477	11.5	3승
7	롯데	31	46	2	0.403	17.0	6패
8	LG	33	49	4	0.402	17.5	1승

다”면서 “이번주 한화, SK와의 6연전은 쉽지 않은 승부로 예상되지만 어렵게 오른 4위권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젠 100승을 향하여...



# ‘황제’ 최연소 통산 50승 즉위

## 우즈, PGA 뷰익오픈 우승... ‘역전 불허’ 30세 7개월만에 대기록... 3년이나 앞당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연소 통산 50승을 달성했다. 우즈는 7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랭크의 위익골프장(파72·7천127야드)에서 열린 PGA투어 뷰익오픈 마지막날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로 짐 퓨릭(미국·267타)을 3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우즈는 30세 7개월만에 50승을 이뤄 1973년 33세 6개월의 나이로 50승을 올린 ‘황금곰’ 잭 니클로스(미국)의 기록을 3년이나 앞당겼다. PGA 투어 ‘50승 클럽’에 7번째 회원이 된 우즈는 “50승은 정말 짜릿한 일”이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1996년 프로에 데뷔해 지금까지 총 210개

PGA 투어대회에 출전한 우즈는 4개 대회에 한번꼴로 우승한 셈이다. 우즈는 지금까지 마지막 라운드를 선두로 맞은 39개 대회 가운데 36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 이번 대회를 포함해 3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친 21개 대회에서 한 번도 역전패가 없는 ‘역전 불허’의 황제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 합계 24언더파로 자신의 시즌 최저타수를 작성했고, 4라운드 합계 28개의 버디를 수확해 뷰익오픈 출전 사상 최다 버디를 잡는 신바람을 냈다. 우즈는 이번 대회 2라운드에서 무려 7타를 줄이면서 공동 선두로 도약한 뒤 3라운드에서 2타차 단독 선두로 나서 최종 라운드에 리드를 끝까지 지켰다. 우즈는 이날 12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해 퓨릭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으나 13번홀(파5)에서 105야드 거리의 어프로치샷을 홀에 바짝 갖다 붙여 탭인 버디를 성공시킨 뒤

년도	승	패	무	승률
1996	2	0	0	100%
1997	4	0	0	100%
1998	1	0	0	100%
1999	8	0	0	100%
2000	9	0	0	100%
2001	5	0	0	100%
2002	5	0	0	100%
2003	5	0	0	100%
2004	1	0	0	100%
2005	6	0	0	100%
2006	4	0	0	100%

15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 2타차로 달아나 승부에 썩기를 막았다. 우즈는 오는 18일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 출전, 12번째 메이저 우승이자 니클로스가 보유한 메이저 최다승(18승) 기록 경신에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예정이다. 한편 뷰익오픈 3연패와 통산 대회 4번째 우승을 동시에 노린 비제이 싱(파지)은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공동 11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美 44세 노장 스테인하워 우승

## 태극낭자를 부진... 위성미 26위 한희원·김주미 10위에 만족 브리티시여자오픈 최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왕관은 44세의 백전노장 셰리 스테인하워(미국)에게 돌아갔다. 스테인하워는 7일(한국시간) 영국 블랙풀의 로열 리던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링크스(파72·6천463야드)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정상에 올랐다. 1998년과 1999년에 이어 7년 만에 브리티시여자오픈 세 번째 우승컵을 차지한 스테인하워는 1992년 뒤모리에클래식 우승 이후 14년 만에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는 감격을 누렸다. 3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스테인하워는 이날도 소결을 행보로 일관했지만 추격자들이 제자리 걸음을 걸거나 자멸한 덕에 이렇다 할 위기없이 우승할 수 있었다. 4번홀(파4)에서 단 1개의 버디를 뽑아내는데 그쳤지만 이미 우승이 확정된 채 맞은 18번홀(파4)에서 보기 1개를 곁들였을 뿐 철저하게 파로 막아내는데 주력했다. 18번홀에서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빠진 바람에 보기 퍼트가 챔피언 퍼트가 된 스테인하워는 48개 홀을 무보기 행진을 펼치는 등 44



7일 영국에서 열린 브리티시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셰리 스테인하워가 우승컵에 입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라운드 동안 보기 4개, 더블보기 2개 등 6개 홀에서만 파를 지키지 못했다. 임스터와 함께 합계 3언더파 285타로 공동 4위에 머문 오호아는 그러나 이 대회에서 첫오프런 카리 웹(호주)에 빼앗겼던 상급랭킹 1위(167만5천774달러) 명예를 되찾아 위안을 삼았다. 이날 2언더파 70타를 때린 한희원(28·휠라코리아)과 1타를 줄인 김주미(22·하이트)는 합계 2오버파 290타로 공동10위에 올라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한희원은 특히 1라운드 때 8오버파 80타를 치는 최악의 부진을 딛고 ‘톱10’까지 올라오는 뒷심을 뽐냈다.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는 버디 4개에 트리플보기 1개,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 등을 묶어 2오버파 74타를 치는 데 그치면서 합계 6오버파 294타로 공동 26위로 밀렸다. 올해 들어 일곱 번째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한 위성미가 5위 밖으로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칫 2007년 시즌 대회 출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위성미의 메이저 대회 연속 ‘톱10’ 행진에 제동을 건 것은 2006년에 이르는 벙커였다. 초반 5개 홀에서 파행진을 벌이다 파5홀인 6번 홀과 7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챙기면서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서는 듯 했던 위성미는 9번홀(파3)에서 티샷을 벙커에 빠뜨린 더블보기로 돌아오면서 기세가 꺾였다. 후반 들어서도 4개홀을 파로 막아내다 14번홀(파4)에서 1타를 줄여 상순세에 불을 지피는 듯 했지만 15번홀(파5)에서 두번이나 벙커에 붙이 빠져나오면서 트리플보기가 나오는 통에 상위권 도약의 희망을 접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7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랭크에서 열린 뷰익오픈골프대회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가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